| 현불 논단 |

천리순례, 그리고 서원공동체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의정 스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엔
천축 순례 신라 스님 10여 명 기록
고원 · 바다 건너는 험난한 여정에
순례스님 중 80~90%는 귀환못해
구법승덕분에 佛法 한반도에 전래

삼보사찰 이어내는 천리순례길은
1800년 韓불교사 담아 내고 있어
걸음들, 서원공동체 밑거름 되길

한국불교에서 순례는 오래된 전통이다. 한국불교는 전래와 수용부터 옛 스님들 한 분 한 분의 순례와 구법을 통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7세기 말 당나라의 의정 스님이 쓴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는 천축을 순례 중 만난 동아시아의 스님 5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신라 출신 스님이 10여 명에 달한다. 인구 비례를 따진다면 신라 스님의 이 비중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굳이 세계적인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긴 혜초 스님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일찍부터 우리 불교에 순례의 전통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스님의 순례길은 실크로드 사막길과 파미르 고원의 서쪽 험한 총령을 넘는 육로와 거센 풍랑을 이겨야 하는 바닷길의 두 가지 길이 있었다.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서 부처님의 나라 천축에 다녀오는 구법 순례길을 10명 중에 8~9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묘사했다.

그 죽음의 길을 건너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해오면서 형성된 것이 동아시아의 불교이고 한국불교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들 옛 스님들의 목숨을 건 종교적 열정과 서원이 없었다면, 18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주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선종(禪宗)의 시작도 순례에서 비롯되었다. 신라 하대와 고려 전기에 걸쳐서 구산선문을 개창한 스님들은 대부분 순례자였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구법승이라고 불리게 되는 이들 구산선문의 개산조들은 대부분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을 참방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을 구한 순례자들이기도 했다. 이들 스님들의 중국 내 행로를 쫓아가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당나라의 오대산, 장안, 성도, 그리고 강서성과 6조 혜능 스님이 머물렀던 조계 등이다.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 삼보사찰을 잇는 천리길을 순례하는 대규모 불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1800년 영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불교 성지이다.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잇는 길이다. 불교뿐만 아니라 남도의 산야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껴안고 있는 길이다. 동시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텅 비어버린 지방 도시의 소읍과 들판, 산들을 잇는 길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을 품고 있지만, 소외되어 있는 농촌마을들과 지역사회들이 힘겹게 삶을 일구고 있는 현장들을 지나는 길이기도 하다. 옛 스님들의 구도정신, 수행정신, 그리고 중생을 아우른 요익중생의 서원이 깃들어 있는 길이다. 그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맨발로 걷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되새겨지기를 기원해본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까지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듯이, 옛 스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목숨 내놓기를 마다하지 않았듯이, 우리 불교 성지인 삼보사찰을 잇는 순례의 여정 또한 중생을 아우르는 동체대비의 마음들이 절로 우러나는 신행의 길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순례는 쫓아서 따르는 것이다. 삼보사찰을 순례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호지(護持)하는 스님들을 쫓아서 따르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 걸음들이 한국불교를 되살리고, 한국사회를 아우르며, 당면한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외된 생명과 소외된 삶들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 함께 상생하는 우리 한국불교 서원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언어의 창조성과 에너지

오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언어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에너지가 담겨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일러 언어의 생명력이라고 하지요.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진정성이 담긴 아름답고 좋은 말은 행복한 일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언어의 창조적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불유쾌한 기억들을 지워버려야 해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말들을 반복해서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말을 반복하다보면 내 안에 밝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나가버린 과거의 불행한 일과 불유쾌한 기억들을 되살려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증오 그리고 질투의 마음을 보냅니다. 불행한 일들을



그림 · 최주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기회만 있으면 말끝마다 되뇌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말의 씨를 싹트게 하여 불행을 불러들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창조적 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은 소리로, 소리는 메아리를 부릅니다.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메아리가 생기게 되는 것처럼 나의 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은 자신의 무의식 깊숙이 입력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말한 대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진언이든 허언이든 언어에는 진정 우리의 기운이 담겨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친 말을 쓸 때는 거친 기운이 내 온 몸을 휘어잡고 있으며,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쓸 때는 그런 기운으로 인해 내 안에 평화가 감돌게 됩니다. 남의 가슴을 헤집는 아픈 말을 하고 나면 그 아픈 파장이 자신에게도 전해져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수행 중 하나로 염불기도법이 있습니다. 염불이나 진언을 반복해서 외는 것은 그들이 지닌 에너지를 내 안에 불러오는 것입니다.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몸과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깨달음의 언어를 소리 내어 읽으니 마음이 밝아지고 더불어 몸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지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하고 발전을 가져오는 말을 쓴다면 행복의 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국공립합창단의 불편한 종교색

국 · 시립합창단의 선곡이 기독교 편향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불교음악원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19개 국 · 시 · 도립합창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립합창단은 80%, 시립합창단은 70% 수준으로 기독교 음악을 선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중된 선곡의 요인으로는 상임지휘자들의 종교를 지적했다. 전국 공립합창단의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의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 등 거의 전원이 교회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KCDA 소속 지휘자는 약 57명 이상으로, 절대 다수가 개신교회나 성가대 혹은 신학대학 교회음악의 배경을 지니고 있어 사실상 개신교 합창단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다소 충격적인 수치일 수 있겠지만, 의외의 결과는 아니다. 합창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양음악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에 토대를 두고 있는 데다가, 기독교 신앙 특성상 CCM이나 찬송가 등 음악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재양성 시스템의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결국 합창계에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익숙하고 잘 알려진 기독교 합창곡을 선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물론 도 넘은 종교편향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하겠지만 그 요인을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다. 수준 높은 찬불합창곡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관심 · 지원의 부재, 불교음악 인재 양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실을 가속화시켰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기후위기 대책 변화 시급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종교계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이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함께 활동했던 백종연 신부, 안홍택 목사, 김선명 교무도 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들 종교인은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탄소중립시나리오 안과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안이 제대로 도출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기업 · 산업계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에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올해 5월 출범했다. 정부 각 부처 장관 등 정부측 위원과 각 분야별 민간 위원을 포함한 9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이후 꾸준히 '그린워싱위원회' 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탄소중립이라는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시나리오와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법만 스님 등이 "그린워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위원들의 사퇴는 종교계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26일 오연재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가장 먼저 민간위원으로서 사퇴했고, 9월 27일에는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이 위원직을 내려놨다.

기후위기는 당장 인류 존속의 당면 문제이다.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처럼 상황이 급박함에도 당장의 단물에 취해 위험을 망각하는 우를 현재 정부는 보여주고 있다.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계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경종이다. 정부는 깊이 새기고, 전향적인 변화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5~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BTN 붓다회
BUDDHACLUB
BTN 붓다회 방송포교 25년
- 코로나19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다 -
만약,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나투신다면 어떻게 전법하실까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법을 전하였지만,
오늘날이라면 방송국 카메라앞에서 법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방송포교 매체가 BTN불교TV입니다
BTN 붓다회는 방송포교 원력을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방송포교 불사의 주인공, 붓다회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 1855-0108
olleh 233번 B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